대학수학능력시험의 현황과 과제

배 호 순 | 서울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 교수

수능에 관한 연구개발을 보다 체계화하기 위한 전문 인력의 대폭적인 확충과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전문가들로 하여금 수능의 성격을 명료화하고 그를 타당화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Ⅰ. 배경과 현황

대학 신입생 선발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해 온 시험은 지난 30여년 동안 대학입학 자격고사, 대학입학 예비고사, 대학입학 학력고사 등을 거쳐 현재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라 함)에 이르렀다. 수능은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보다 수준높은 학력검사가 요구되어 교육개혁의 차원에서 새롭게 시도된 대학입학 전형근거로 사용하는 데 중점을 둔 학력고사라고 소개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수능에 관한 보다 공식적인 정의는 '대학교육의 수학에 필요한 학업적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통합교과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에 맞추어 고차적인 사고력을 측정하는 발전된 학력검사'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사항을 제시하여 검사의 성격과 측정목표를 설명하고 있다(황정규 외 3인, 1992). 즉,

1) 선천적 능력이나 일반적 적성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수학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업적성을 측정한다.
2) 학교교육을 통하여 학습된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된다.
3) 특정한 교과별 시험이 아니라 통합교과적 소재를 활용하여 출제한다.
4) 사고력 중심의 발전된 학력고사이다.
5) 출제의 영역으로 언어영역, 수리탐구영역, 외국어(영역)영역의 3개 영역을 측정 한다.

또한, 수능의 출제 방향은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및 이수에 그 바탕을

두고 범교과적 통합적 능력, 즉 언어, 수리, 탐구 등의 영역에 대하여 사고력, 창의력, 문제해결력 등을 평가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삼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수능은 대학수학능력을 측정함으로써 보다 타당한 입학전형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대학에서 요구하는 우수한 학생 선발에 유리하다는 점과 더불어, 보다 수준 높은 사고력을 측정함으로써 중등교육의 질적 개선을 기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4회 이상의 실험평가연구를 바탕으로 1994학년도부터 시행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수능은 지난 11년 동안 여러 차례 난이도 조정 실패로 진통을 겪기도 하였으며, 대학의 자율화 정책 등의 영향을 받아, 시험 내용 및 목표가 부분적으로 변화하기도 하였고, 시험결과 통지를 위한 점수체제의 변화(총점과 그에 대한 등급 보고를 금지, 표준점수체제의 도입) 등을 겪으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고등학교 전 학년에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2005학년도 대학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능은 예전에 비하여 보다 많이 변화된 모습을 띨 것으로 예상된다.

간단히 말해서, 수능이란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학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 5개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탐구, 제2외국어/한문)별로 통합교과적 소재를 바탕으로 한 사고력 중심의 발전된 학력고사라고 규정할 수 있다. 대학 수학 적격자의 선발 기능을 제고하고,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며, 학생선발에 공공성과 객관성이 높은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시험으로 인식되고 있다. 2005학년도부터는 종전과 달리 수능의 내용이 5개 영역으로 구성될 예정인데, 탐구영역에 직업탐구영역이 추가되고(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 모든 영역과 과목을 수험생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영역별로 1~4개 교과목까지 선택 가능)는 점과 성적통지에서 영역별 · 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만을 통지하되, 종합 등급은 제외시킨다.

최근 몇 년 동안 수시 입학 등 몇 가지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능을 치루어야 하고 그 점수를 지망 대학에 제출해야 하는 패턴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능 성적은 내신 성적과 더불어 대학입학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영향력있는 입학전형자료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대부분의 대학에서 수능성적은 내신성적과 더불어 가장 핵심적인 대학입학전형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수시 입학 등 몇 가지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능을 치루어야 하고 그 점수를 지망 대학에 제출해야 하는 패턴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능 성적은 내신 성적과 더불어 대학입학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영향력있는 입학전형자료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Ⅱ. 수능, 무엇이 문제인가?

수능이 대학입시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클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

이 지대하고, 관련된 수많은 국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지난 수년 동안 수능과 관련된 크고 작은 잡음과 불만이 끊이지 않게 발생하였고, 수능의 사회적 · 교육적 역할 수행에 따른 사소한 문제들이 부단하게 제기되어 왔다.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수능 관련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으며 그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파악해 봄으로써 그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이를 위하여 지금까지 언급되어 온 수능 관련 문제들이나 파악된 현상들은 단일 요인이라기보다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라는 전제하에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관점에 입각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즉, 수능과 관련된 문제들을 보다 밀접하게 분석해 보면, 검사도구로서 구비해야 할 측정 목표 및 성격과 관련된 타당도 문제, 출제 관련 문제, 결과 활용 문제, 그로 인한 사회문화적 영향 문제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1. 수능의 측정 목표와 성격 문제

수능이 지금까지 내세웠던 명분을 바탕으로 측정 목표를 충실하게 달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 볼 때, 우선적으로 수능에 대한 성격 규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초창기부터 실천하기 어려운 모호한 성격을 규정하고 그를 유지해 온 연유로, 필연적으로 그를 만족스럽게, 그리고 충실하게 달성하기 어려운, 타당성이 부족한 검사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보다 넓게 고찰해 보면, 이와 같은 모호한 성격 규정과 그에 따른 출제 및 활용이 그 동안의 사교육의 조장, 학교교육력의 약화,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비정상화 촉진 등과 같은 교육문제 등과 구조적으로 무관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특정 시험(검사)의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그 타당성이 검증되어야만 그 시험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관련된 집단이 이를 신뢰하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수능의 성격은 학력검사(achievement test)와 학업적성검사(scholastic aptitude test)의 성격을 병행해서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면서 대학에서의 수학능력을 측정한다고 표방하고 있어 사실상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셈이다. 형식상으로는 학력고사라고 하지만 대학수학에 필요한 학업적성을 측정하는 데 목적을 둔 이중의 목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성격의 검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수능이 이 두 가지 성격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고 규정하기도 한다(황정규 외 9인, 1997). 말하자면, 수능이 학업적성과 학력(학업성취도)이라는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든지, 그 중간 개념을 측정하려고 의도한다는 것 자체가 심리측정학적으로 볼 때 문제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많다. 하나의 검사에서 두 가지 이상의 심리적 속성이나 중간적인 속성을 측정하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검사도구의 구인타당화가 어렵게 되어 타당성이 있는 검사로서 작동하기 어렵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외국어영역은 학업적성이라기보다는 학업에 필요한 도구이므로 적성검사의 대상이라고 보기보다는 학력검사의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어 중간 개념으로 보기가 어렵고, 학력과 학업적성의

중간개념을 보편화하여 의사소통하고 측정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교육측정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수능의 구인타당도와 내용타당도(또는 교육과정타당도)를 만족스럽게 입증해 주는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한 연유로 수능 관련 집단의 인식이나 결과 활용도를 중심으로 한 실증적 근거를 바탕으로 그 타당성을 추정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검사의 타당성(특히, 구인타당도)은 많은 경우에 그 검사를 활용하고 있는 관련 집단의 반응이나 태도, 그 결과의 활용 사례들을 중심으로 실증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검증될 필요가 있다. 실증적인 사례들로 보면, 학업적성검사와 학력검사의 성격을 동시에 추구한 연유로 말미암아 수능의 성격이 보다 광범위하고 추상적이어서 그 출제과정 자체에는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그에 대비하여 가르치고 배우는 교원이나 학생 입장에서 보면 매우 난해하기 짝이 없는, 모호한 검사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동시에 결과 활용면에서 보면 어느 하나의 검사 목적도 만족스럽게 달성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말하자면, 수능의 측정 목표나 그 내용을 통하여 인식되는 성격이 관련 집단에게 명료하게 일치된 이미지로 드러나지 못하거나 합의된 성격으로 인식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니까 수능의 성격이 모호한 만큼 관련 집단에게 제각기 다른 인상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어, 의도하는 목표를 만족스럽게 달성하지 못한 학력검사라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출제위원들을 통하여 전래되고 계승되어 오는 성격이 오늘날의 수능의 성격이라고 말하는 것이 비교적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다. 출제위원 집단들이 인식하고 있는, 대학수학능력이라는 성격이나 고등학생 수준의 고차적 사고능력이라는 성격이 비교적 추상적이지만, 실제적으로 지난 10여년 동안 수능의 성격을 결정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측은 그 동안 출제위원들이 대폭적으로 교체되지 않고 유지되어 왔다는 점과 그들의 출제 의도나 패턴이 수능 관련 사교육 시장에서나 공교육 현장에서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미쳤던 점 등에 근거하여 가능한 것이다.

수능은 학력검사와 학업적성검사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추구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학업적성의 측정에 중점을 두는 기본형 검사와 학업성취도 측정에 초점을 둔 선택형 검사로 이원화하는 방안이다.

또한, 수능의 측정 목표와 성격이 고차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의 측정에 초점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수능에 대비하는 입장에서 보면, 비교적 모호하고 추상적이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입각한 학력검사와는 거리가 먼 검사로 인식되기도 하며, 실제로 교사가 제작한 학력검사에서 좋은 성적을 얻는다고 해서 수능에서 좋은 성적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다. 이 점을 근거로 볼 때, 수준높은 학력검사의 성격을 추구해야 하는 수능이 실질적으로는 교과타당도(교육과정타당도)가 빈약한 학력검사라고 단정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수능의 측정 목표는 명분상으로나 형식상으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춘, 범교과적인 학력검사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많고 수능의 내용과 학교학습 내용과는 관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능의 문항형식이 객관식 선택형 지필검사라는 특성이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 또한 제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방법이나 내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부담시험이기 때문이다. 제한된 시간과 장소에서 70만 명 내외의 수험생이 일시에 시험을 치루어야 하고 이를 효율적이고 객관적으로 채점하여 결과를 통지해 주어야 한다는 제약조건 때문에 객관식 선택형 문항형식을 취해 오고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해 오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감히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동안 수능의 문항형식이 학교교육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특히 부정적인 영향이나 역기능적인 측면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하지 못한 점은 수능 관련 연구개발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까닭과 설령 그 문제를 파헤친다고 해도 그를 개선하기가 어렵다는 실질적인 이유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객관식 선택형 지필검사 형식으로는 고차적 사고능력이나 문제해결능력을 측정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과 더불어 정답만을 추구하는 선택형 문항 형식으로는 고차적 정신기능을 교육하는 데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고 대학수학능력을 타당성있게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 수능 출제 및 관리운영 문제

수능에서 의도하고 있는 측정 목표와 고등학교 교사가 개발한 학력고사의 측정 목표가 상당한 정도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고교 학과 성적에서 우수한 학생과 수능 성적으로 우수한 학생이 별도이고 대학은 이들 중에서 수능 성적 우수 학생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게 되었다. 그러니까 대학입시생들은 수능 중심의 입시준비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고, 이를 학교가 대응해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학원에서 해결하려는 패턴이 형성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수능과 같은 고부담시험이 대학진학이나 사회진출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통념이 만연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대학입시를 위하여 학교교육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들을 학원이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학교가 고부담시험에 대한 집중적인 대비를 해 주지 않고 있는 반면에, 학원에서는 그에 대한 집중적인 준비를 해 준다고 믿고 있는 것이 그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대학의 자율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고등학교 내신의 비중이 강화되었고 그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유발된 고등학교 학력의 인플레 현상은 고등학교 교원들의 추천이나 내신 성적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켜 왔고, 그 반사작용으로 수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과도하게 증폭되어 왔으며, 대학입학전형 근거자료로서 비중이 증대되어 왔다. 그 동안 대학의 고등학교 내신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어 왔기에 실질적인 내신 성적 반영률은 점진적으로 감소되어 왔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수능 이외에 신통한 대안이 없다는 인식으로 인하여 수능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지나친 과민

반응 현상은 수능을 예전에 비하여 보다 더 높은 부담을 주는 고부담시험으로 내몰아 왔고, 급기야는 수능 문항(정답)에 대한 시비나 출제위원 선정 문제 등이 국민적 관심사로 보도되기도 하였다.

수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지나치게 높아지고 이로 인하여 수능이 고부담시험으로 변모하게 된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여 출제위원 선정 문제와 복수정답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보다 근원적인 원인들을 분석해 보면, 출제위원 선정 과정 및 출제 관리 운영상 종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안일한 대처, 숙달된 전문 인력의 부족 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보다 밀도 있게 들여다 보면, 잠재적 출제위원인 교과교육 전문가(특히, 교과교육 평가전문가)의 부족, 출제위원 관리 및 출제 관리상 경험자의 부족과 집중도 저하, 신진 출제위원의 리쿠르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 출제된 문항의 질 관리와 보안 관리 수준이 구태의연한 점 등이 보다 근원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수능 출제와 관련된 실질적인 원인을 분석해 본다면, 출제위원으로 봉사하고 기여하는 데 따른 보상체제가 미약한 점, 힘겹게 봉사해도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는 실정이라서 필연적으로 출제위원들의 철저한 사명감과 책무감을 유지시키지 못한 점, 주관 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관련 연구개발 인력의 부족 현상과 재정적 지원 부족 현상, 수능 이외의 다양한 수탁 업무(각종 시험 출제 및 관리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여유있게 수능 연구개발에만 몰두하기 어려운 실정, 출제위원 선발 및 교육훈련이나 출제관리운영이 보다 체계화되어 있지 못한 점 등을 그 원인으로 지적할 수도 있다.

3. 수능의 활용 문제

대학입학 희망자들이 대학에 제시하는 입학전형 근거자료 중에서 수능 점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형식상으로 내세우고 있는 비중에 비하여 실제로는 훨씬 더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수능에서 측정하는 바가 과연 대학수학능력의 본질(성격)과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볼 때, 대체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는 점이 또다른 중요한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몇몇 대학의 연구 결과는 수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예언타당도가 낮은 검사라는 점을 입증해 주고 있다. 즉, 수능이 대학에서의 수학능력을 측정하는 적성검사와 학력검사 겸용의 측정도구라면 대학 성적과 수능 성적간의 상관도가 높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다는 것은 현재의 수능이 명분상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측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단적으로, 지난 10여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수능이란 검사는 준거타당도(특히, 예언타당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준거타당도가 낮은 검사는 결국에는 유용성이 낮아져 퇴출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학의 경우에는 대부분 수능의 예언타당도가 매우 빈약한 시험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매우 특이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많은 대학에서 높은 수능 성적을 보인 학생이 대학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것

이라는 기대가 어긋난 사례들을 포함하여, 수능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비하여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보다 좋은 대학수학능력(대학 성적 및 적응)을 보인다는 수많은 사례를 보고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대학들이 실증적인 근거자료나 경험을 무시하면서 지나치게 수능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원인을 찾아보면, 먼저 교육행정적인 차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즉, 대학별 본고사를 용납하지 않고 수능 성적을 사용하도록 요구한 관계 당국의 통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동시에, 현재로서는 수능 이외의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또다른 원인으로는, 개별 대학이 고교에서의 성적 부풀리기나 교원들의 추천서에 대한 신뢰성 저하 현상을 빌미로 고등학교 내신 비중을 저하시켜 온 조치를 지적할 수 있다.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수능 점수에 비하여 보다 더 타당한 전형자료인데도 불구하고 그 신뢰성이 저하되니까 그 비중을 감소시키고 그 대신에 상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수능에 대한 비중을 강화시켜 활용해 왔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상당수의 대학들이 예언타당도면에서 그렇게 만족스러운 전형근거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수능 점수를 내신 성적에 비하여 선호하면서도 이를 보완하거나 대안적인 근거자료를 개발하여 활용하려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상유지에만 급급하고 있는 것도 또다른 원인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말하자면, 대학들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수능 이외의 다양한 대안적인 입학전형자료들을 연구개발해서 활용해야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면서도, 실제로는 수수방관해 왔거나, 무관심하였거나, 또는 이를 위한 투자에 인색하였던 것이 그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4. 수능의 사회문화적 영향 문제

지난 10년 동안 수능은 예상하기 어려울 만큼 교육계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 왔다. 특히 국가적 관심사로서 국민 모두에게 엄청난 부담과 스트레스를 부과해 왔기에 수능 관련 부작용과 폐단도 적지 않게 발생하였다. 수능을 준비하거나 그를 활용하는 입장, 그리고 수능의 실시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입장들을 포괄적으로 볼 때, 수능의 실시보다 큰 교육 관련 국가적 행사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표현할 수 있다. 수많은 국민들의 관심사인 수능의 출제와 실시, 그리고 그 결과의 활용을 중심으로 보면, 수능이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기 짝이 없으나 그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문헌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수능의 사회문화적 영향에 관하여 장기적이며 체계적으로, 그리고 다각적인 차원에서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다만 수능과 관련된 주요 집단 또는 기관을 중심으로 지난 10여년 동안의 수능이 미친 영향을 개괄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그를 위하여 고등학교 및 수험생 입장, 대학의 입장, 교육 관련 사회적 입장, 학부모를 포함한 일반 국민의 입장, 사교육 관련 집단의 입장, 교육정책기관의 입장 등 일곱 가지 입장을 그 준거로 삼았다.

먼저, 고등학교 및 수험생의 입장에서 보면, 새롭게 등장한 수능이 종래의 암기력이나 이해력에 의존하던 학력고사 수준을 상당한 정

도로 격상시킨, 발전된 형태의 수준 높은 학력고사라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과정을 통하여 범교과적인 고차적 정신기능을 추구하는 것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목표라고 주장만 하던 터에, 초창기 수능이 보여 준 수준 높은 학업적성검사로서의 인상은 중등교원들이나 수험생들에게 참신한 충격을 던져 주었다고 기록될 수 있다. 그로 인하여 고등학교에서의 교수 · 학습에 변화가 일어났고, 수능에 대비하기 위하여 독서량이 늘어 났고, 수업형태가 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수능 문항의 소재로 교과 내용을 균형있게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인하여 범교과적인 문항들이 퇴조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출제 대상 소재가 고갈되어 학교 수업만으로는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어렵다는 인식이 만연되면서 사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게 되었다.

한편, 학교에서 측정활동이 교수 · 학습활동을 주도하는 속성이 있는데다가 수능이 내신에 비하여 보다 강력한 대학입학전형 근거자료라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수능의 문항형식이나 내용 등이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다각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수능이 고등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대학교육에까지 미치는 지대한 영향력을 중심으로 볼 때, 지난 10여년 동안 정답만을 추구하는 선택형 지필검사 형식만을 고수해 온 것은 국가적 인재양성 차원의 커다란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다. 말하자면, 고차적 사고력을 측정한다고 표방하면서도 선다형 지필검사 형식을 취한 수능은 현재와 같은 여건하에서는 제한적인 수준의 사고력이나 정신기능만을 측정할 수 밖에 없는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그 제한점을 지적하자면, 1) 선택형 지필검사 형식으로는 고차적 정신기능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 2) 주어진 답지 중에서 정답만을 선택하는 것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학습의 과정(過程)을 경시하고 학습 결과만을 중시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 3) 고차적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정답의 선택에 비하여 해답(주어진 과제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직접 제작, 수행, 표현, 창출해 보도록 요구해야 하는데, 수능에서는 구조적으로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 4) 근본적으로 선택형 검사를 구성하고 있는 문항의 구인타당도(또는 내용타당도)가 빈약하다는 점, 5) 선택형 지필검사의 출제 과정에서 교육목표를 분석하고 분석된 행동목표를 중심으로 평가문항을 선정하기 때문에 교육목표의 제한된 측면만을 측정할 수 밖에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10여 년의 수능 경험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구조적인 제한점을 의연한 자세로 인정하면서, 지난 수십년 동안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실시하여 오는 16+(Sixteen Plus), 바깔로레아(Baccalaureat), 아비투어(Abiturpruefung) 등과 같은 일종의 대학입학 자격 고사에서는 정답만을 요구하는 선택형 문항 형식을 취하지 않고 서술식 문항과 수행과제에 대한 평가를 중시해 오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하는 중요한 수능이 정답만을 추구하도록 강요하는 선다형 지필검사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 국가 장래를 이끌어야 할 인재를 길러내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나 그 역기능적인 면에 관하여 그 동안 심각하게 고려해 보지 않았다는 점 자체도 문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학 입장에서 보면, 수능은 신입생을 선발하는 데 필요한 근거자료인 대학수학능력(학업적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연례행사처럼 출제되는 측정도구이다. 그러므로 대학인들은 수능점수가 충실하게 학업적성(또는 학문적성)을 표현해 주는 학생선발을 위한 전형자료이기를 희망해 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렇지만 형식상으로는, 현재까지 무난하게 학생 선발이라는 연례행사를 치루어 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수능이 대학수학능력으로서 학업적성을 타당하게 측정해 주기보다는 객관식 선다형 문항으로 제한된 정신기능만을 측정하는 시험이라는 인식이 강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논술고사, 면접 등을 실시해 오고 있는 대학이 상당수가 있다. 이를 중심으로 추론해 보면, 대학인들의 수능의 측정 목표 달성에 대한 기대 수준은 초창기에 비하여 최근에는 저조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수능에서 적용하고 있는 오지 선다형 객관식 문항으로는 대학에서의 성공적인 수학과 적응에 필요한 문제해결능력 등을 포함한 고등정신기능을 만족스럽게 측정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믿는 것은 선발된 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학교육 실제에서의 경험이나 실증적 근거에 바탕을 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대학의 자율화를 기하는 차원에서 신입생 선발에서 대학별 본고사에 대한 강력한 대안으로 내신 성적과 수능 점수를 전형자료로 활용해 왔으나 고등학교 내신 성적의 인플레 현상을 실제 경험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수능의 비중을 상향조정한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실증적 자료에 입각하여 수능이 기대한 만큼 타당한 입학전형 근거자료가 아닐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고, 이를 해결해야 할 문제로 간주하고 다양한 대안을 강구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수능의 타당성에 대한 의구심이나 고등학교 내신에 대한 불신으로 말미암아 대학 본고사를 금지시키고 있는 당국의 정책에 대하여 보다 강도 높게 대학의 학생선발에 관한 실질적인 자율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중소 규모의 대학에서는 수능을 보다 유용한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 타당한 학력고사로 개선해 줄 것을 예년에 비하여 보다 강도 높게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교육 관련 사회적 현상을 중심으로 보면, 수능의 측정 목적과 성격에 대한 고등학교 교사나 학생들의 인식이 일치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일선 학교의 교사가 개발한 학력고사로는 수능의 측정 목표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공교육에 대한 불신도가 높아지는 반면에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수능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많고, 대학은 이들 중에서 수능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니까 수험생들은 수능 중심의 입시준비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고, 그를 사교육시장에서 해결하려는 패턴이 형성되어 온 것은 수능과 관련된 중요한 사회적 현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말하자면, 지난 수년 동안 학교 학습에 충실하면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는 신념은 많은 경우에 허상이

라고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그러한 인식은 결국에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파행을 야기하였으며,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동시에, 학교 교사에 대한 불신만을 부채질하였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학교교육의 경쟁력 저하 현상을 초래하기도 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에서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의 운영으로는 수능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해 줄 수 없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유발된 결과가 사교육시장의 팽창 현상을 포함한 많은 교육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였거나 또는 그 주요 원인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해 내기 위한 선진국형 교육을 지향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수능이 고차적 사고능력을 측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서술식 문화형식과 수행평가 방식을 도입하는 과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학부모, 학생 및 교원들을 포함한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 동안에 수능 난이도가 일관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를 위시로 하여 최근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출제위원 선정과 복수 정답 문제 등에 대하여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수능이 인생의 성패를 크게 좌우하는 고부담검사라는 점에서 그 주관 부처에 대하여 출제위원 선정 및 관리에 대한 보다 강도 높은 대응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민감한 반응은 수능이 고부담검사라는 점뿐만 아니라 단 1회만 실시된다는 점으로 말미암아 유발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두 번 이상 실시해 주기를 희망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게 되었다.

다섯째, 언론기관들은 수능이 국가적 연례행사로서 지니는 국민적 관심사라는 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일종의 특종을 보도하는 데만 관심을 두고 과도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즉, 수능 관련 인구가 많다는 점을 중시하고 사소한 관련 보도를 필요 이상의 비중을 두어 침소봉대격으로 보도하는 자세도 쉽게 발견되기도 하였으며, 수능 관련 문제가 터지기만을 고대하는 것처럼 반응하는 사례도 빈발하였다. 말하자면, 성숙되지 못한 언론 보도는 국민들로 하여금 수능에 대하여 필요 이상의 민감한 반응을 보이도록 일종의 사회적 조건화를 부채질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수능이 국민적 최대 관심사의 하나이며 고부담시험이라는 점을 반증해 준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교육 정책관련자들로서는 대학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신입생 선발을 자율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판단되는데, 이는 지난 10여년 동안 대학별 신입생 선발 방법이 상당한 정도로 다양화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교육비 문제를 빗장으로 삼아 대학별 본고사를 금지시키고 수능을 주요 전형자료로 활용할 것을 강요(?)해 오고 있어 대학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수시 입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에 수능을 전형자료로 활용하지 않는 대학들은 찾아보기 어

렵고 대학이 신입생 선발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수능을 통하여 보장할 수 있다는 관점을 고수하는 것은 관계 당국이 대학의 실질적인 자율화 정책과 관련해서 마지노선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인식되기도 하였다.

Ⅲ. 해결 과제의 탐색 : 논의와 결론

수능에 대한 국가적 관심도와 그 활용도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수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믿고, 그 해결과제를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대학입시의 정상화와 고교교육의 정상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수능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이나 그 해결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수능에 대한 국가사회적 역할 기대에 만족스럽게 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수능을 보다 타당하고 신뢰로운 검사로 개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수능이 국가교육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그 문항형식이나 성격(내용)에 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노력이 요구되는데도 불구하고, 측정 대상이나 내용뿐만 아니라 측정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수능의 성격 재규정과 문항형식의 다양화를 위한 체계적인 연구개발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수능에 관한 연구개발을 보다 체계화하기 위한 전문 인력의 대폭적인 확충과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전문가들로 하여금 수능의 성격을 명료화하고 그를 타당화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교육개혁 차원에서 수능의 성격을 명료화하여 타당한 검사를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해 나가되, 수능에 대한 국가사회적 차원의 다양한 요구에 만족스럽게 부응하기 위하여 학력검사와 학업적성검사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추구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학업적성의 측정에 중점을 두는 기본형 검사와 학업성취도 측정에 초점을 둔 선택형 검사로 이원화하는 방안으로서 학업적성검사와 학력검사 성격을 이원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기본형 수능에서는 대학수학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학업적성을 밀도있게 측정하는 한편, 선택형 수능에서는 전공분야와 진로의 탐색에 도움을 주는 선택과목(영역) 중심의 학력을 측정하는 방향으로 규정하고 각 성격에 적절한 시험을 출제하도록 하여 수험생과 대학들로 하여금 수능을 다양한 목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지향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그 동안 수능 실시 및 채점과 그 활용상의 효율성 및 객관성을 중시하여 선택형 객관식 문항형식만을 추구하던 것으로부터 과감하게 탈피하여,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해 내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수능이 고차적 사고능력을 측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서술식 문항형식과 수행평가 방식을 도입하는 과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성공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채점 과정에 개별 대학이 참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수능을 단 1회만 실시하던 정책으로부터 복수 실시를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

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학업적성의 측정에 중점을 둔 기본형 수능만이라도 2회 이상 실시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능이 지나치게 고부담검사라는 점을 국민적으로 동의한다면 2회 이상 실시하여 수험생들에게 제2, 제3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유있게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적 긴장과 부담을 분산, 이완, 둔감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장래를 고려한 정신적 부담의 경감을 주로한 명분과 정당성을 바탕으로 그 출제와 실시에 관한 사회적 비용과 부담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그 전제조건이 될 필요가 있다.

현행과 같은 일회성의 수능만으로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할 수 없고 수험생을 중심으로 경험하게 될 엄청난 부담이나 긴장은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단 한 번의 시험으로 인생의 장래가 좌우된다는 강박관념이나 스트레스는 궁극적으로 자살이나 범죄의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국민 정서면에서 갈수록 각박해지고 여유가 없고 이기적이며 경쟁의식이나 갈등만 높아질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교육에의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며 공교육의 부실을 부추길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수능의 복수 실시나 수능 형식의 다양화와 그 질적 개선 작업은 교육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위한 기본 전제 조건이며,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 동시에, 선택의 여지가 주어지는 다양화 사회 구현을 위한 기본 여건 조성에 기여하며, 국민성 개조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심도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능의 복수 실시나 수능 형식의 다양화와 그 질적 개선 작업은 교육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위한 기본 전제 조건이며,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 동시에, 선택의 여지가 주어지는 다양화 사회 구현을 위한 기본 여건 조성에 기여하며, 국민성 개조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심도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고등학교 내신 성적의 충실도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 교육청별, 또는 중앙정부 차원의 교육과정 중심의 학력검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내신 성적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보강하는 방안과 더불어, 성적 인플레가 심한 학교나 교원에 대한 벌점제 강화 방안도 도입할 필요가 있고, 사교육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 수행평가 방법의 적극적 활용 등이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고교 내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수능이 제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고 나아가 공교육의 정상화가 달성되고 사교육비 문제 등이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교육개혁 차원에서 필수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대학측에게는 개별대학의 실질적인 자율화

를 추구하는 차원에서 대학마다의 학생선발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해 나가야 한다는 과제가 주어져 있다. 대학 자율화와 특성화 차원에서 대안적 학생선발 방안이나 전형근거자료의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일은 수능을 보다 유용하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말하자면, 수능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도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수행평가 중심의 다양한 평가방안을 도입하여 실천하는 방향으로 입시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절실하다. 특히, 대학들이 연대하여 고등학교 내신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여 활용하려는 노력도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학생선발 주체인 대학이 다양한 학생선발 방식을 체계적으로 연구개발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요구되며, 그에 대한 정부차원의 인센티브 제공이 기본 전제로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수능의 성격이 이원화되고 선택과목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그 출제관리도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유연하고 개방적인 출제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요구라고 판단되는 바, 이를 기본 방향으로 삼고 수능출제관리체제를 전환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 주관 부처나 기관에게 주어진 또 다른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출제위원을 감금한 상태에서 제한된 기간 내에 폐쇄적으로 출제하던 형식으로부터 과감하게 탈피해야 한다는 것에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관점에서 실현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출제 과정에서 문항의 보안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재택근무 방식으로 출제하는 방안,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여 출제를 위임하는 방안, 잠재적 출제위원들을 활용한 재택 출제와 일정 기간 출근하여 출제하는 방안 등을 지혜롭게 고려하여 실현 가능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과교육 전문가와 교과교육 평가전문가의 체계적인 양성과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앞으로 그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제위원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시에 양질의 문항을 출제할 수 있는 잠재력을 함양하고 비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다 거시적이며 종합적으로 고찰해 볼 때, 수능에 관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개선 과제로서 대학입시 전담기관을 설립하는 일이 모색되어야 한다. 현재로서도 수능이라는 국가적 대사를 치루는 기관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관심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고, 앞으로는 그 수준이 더욱 높아질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부응할 만한 전담기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수요자 차원에서 인정하고 그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가사회적 기능의 확산과 발전 차원에서 미래 지향적으로 국가경쟁력 제고를 갈망하고 그에 따라 대학교육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전담기관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대학 관련 인구가 국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대하다는 점이나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 그에 따라 대학입시 관련 업무를 수요자 중심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성이라는 점 등은 대학입시 전담기관을 설립하자는 주장의 충분한 명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안은, 전담기관을 신설하여 운영함으로써 수능 출제를 포함한 대학입시 관리업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으로부터 분리 이전시켜 보다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여 국민적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하여금 본질적 연구개발 기능수행에 보다 충실하게 몰두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교육 전반에 보다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균형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국가교육의 미래 구상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는 데에서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차제에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은 채로 표출된 문제만을 해결하는 구태의연한 미봉책으로는 수능 관련 문제나 대학입시와 관련된 국가적 차원의 교육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관점을 수용하고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상기한 바와 같은 과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둔다. 대학교육

참고문헌

박도순(2001). "대학입학전형의 다양화 정착 방안". 기조강연. 한국교육평가학회 춘계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

백순근 외 6인(1998). "대학 신입생 선발제도 개선방안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E. 98-2.

황정규 외 9인(1997). "199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 방안". 1999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방안 연구위원회.

황정규 외 3인(1992).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개발에 관한 연구". 교육부 특별과제 연구보고서.

배호순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뉴욕주립대학교(SUNY-Albany)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 책임연구원, 서울여대 교육대학원장 및 도서관장, 교육부 교육대학원 평가위원, 대교협 대학평가위원, 평가기획위원, 서울시 교육청 고교평가위원, 공항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교육평가학회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술로는 『프로그램평가론』, 『프로그램논리에 입각한 학교교육과정 평가논리체계의 정립』 외 다수가 있다.